

특별기고

이행수



요즘 쌀쌀해진 날씨 이상으로 경제가 많이 얼어붙었다. 한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세계경제 기사가 시작했던 뉴스가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와 전망으로 바뀌었다. 건설했던 건설사는 물론, 시중 은행까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등 경제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과 회생가능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도 투자자의 착수를 연기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고물가와 불황에 적응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개인이 소비를 줄인 결과는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상황에 대해 확실한 전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사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기부금 모금액이 작년보다 8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경제 한파가 소외계층 지원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야말로 '노블레스

경제 어려울수록 불우이웃 생각을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발휘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지만,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그 누구라도 소외계층 지원에 성의를 보이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경제적으로 더 넉넉한 사람들이 소외계층에게 배려를 베풀 때, 사회통합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기업가나 유명 정치가,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사회 명사들은 기부를 당연시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나라 사람들은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만연할 것라는 선입견도 있지만 때를 맞춰 기부금을 내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바라보면 고개가 숙여진다.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나라들을 선진국으로 부르는지 그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모범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연예인이 있어 이슈가 되었다. 6년간 8억5천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연예인이 문근영 씨로 밝혀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부천사'라며

그녀의 선행에 박수를 보내주었다.

다만 그 사건이 더욱 이슈화된 이유는 그녀의 선행을 일부 네티즌이 '인기작전', '빨치산 색깔론'을 운운하며 '그녀의 선행을 폄하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성스러운 기부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각박한 현실에 쓸쓸함을 느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부 잘못된 여론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최근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모두

사회환원을 중요 경영목표로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왔다.

사회공헌에 대한 직원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다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에 은누리봉사단을 창단하여 연중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기관 단체에서도 이웃돕기운동을 펼쳐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하루 한 끼 해결이 어려운 노인들이나 부모의 도움이 없어 장래의 희망마저 포기해야 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은 따뜻한 이웃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비록 많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의 건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내자.

우리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분들을 위하여 작지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서, 내년 봄에는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 업무지원팀장>

시설

U대회 유치 '조건부 승인' 재검토하라

문화관광체육부가 광주시의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U) 대회 유치 신청을 국제 경쟁력을 높여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다. 서울 올림픽, 부산 아시안게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스포츠 행사를 서남권 중심도시인 광주에 유치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문관부의 전제조건은 황당하다. 유치 활동 비용을 전적으로 광주시가 부담하고 경기장 건설 등 관련시설 투자도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은 정부가 광주시의 U대회 유치를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광州市는 전제조건을 의미없게 축소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가급적 적게 쓰라는 것이지, 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의지 없이는 U대회 유치가 성공하기 어렵다. 재정이 열악한 광

주시가 유치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과정에서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지원했다. 각종 SOC 예산도 국비로 책정,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U대회 유치를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 현안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은 이번만이 아니다. 정부는 전남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 제정과 국고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역경제권에 이어 U대회 유치까지 차별해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제조건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 여부도 U대회 유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어 광주시의 발목을 잡아서는 되겠는가.

여수산단 잇단 '가동 중단' 파장 최소화할

금문위기가 실물경기로 번지면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급격히 떨어져 채산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불황의 먹구름이 여수산단 제조업체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대의 나프타 분해시설업체인 여천 NCC는 3개 공장 가운데 제 3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한화석유화학과 한국바스프 등도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경기 하강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가동을 축소하는 업체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산단내 주요 대기업 석유화학업체의 가동률은 50~70% 수준에 불과하다. 수요가 없어 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공장을 가동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원가 절감 차원에서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참고마다 재고품이 가득 쌓여 아직까지 정수처리 하기에 어렵다고 한다.

여수산단 석유화학제품의 최대 수요처는 중국이다. 상당 물량을 중국시장에 수출해왔으나 중국경제의 하강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중국 등 세계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수산단의 침체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뾰족한 대책 없이 세계경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파장이다.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이 불안과 협력업체의 피해는 피할 수 없다. 여수지역 음식점과 상가 등은 매출이 급감해 울상을 짓고 있다. 가동 중단의 피해가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수산단은 국내 최대 규모다. 침체의 골이 깊으면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업계에 비상한 각오로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허탁. 사극을 보다 보면 방 한가운데 장막을 드리운 채 한쪽에는 왕비가 누워있고, 한쪽에는 어의가 앉드려있는 장면이 나온다. 어의의 왕비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으며, 두 사람 사이를 잇는 것은 오직 한 가닥 '비단실'이다. 그러나 손목에 묶은 비단실을 통해 전달된 떨림으로 어의는 왕비의 병을 진단한다.

비단실과 원격 진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돼 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실시간 원격 진료는 1969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시 정신병원과 112마일 떨어진 주립정신병원을 연결한 것이 효시라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원격진료는 IT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 제한을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사기 수법 날로 지능화... '예방 사이트' 구축 필요. 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해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사기도 등장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국민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단을 꾸리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하는 사례다. 예를 들어, 범죄자들이 아무한테나 메일을 보내 "귀하는 국민배심원단에 선정됐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으므로 벌금 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기고. 김옥봉. 아스라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60~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를 고향에는 사랑방 문화가 있었다. 가을걷이를 끝내면 겨울나기를 위한 빨감을 준비해 놓고 농한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저녁이면 사랑방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마을 사랑방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면서 세상만사 이런 저런 이야기 꽃을 피우기 마련이다. 여기에 입담걸쭉한 이야기꾼이라도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고, 으레 동네 구석구석 누구네 살림살이까지 다 알고 있어서, 그때 그 시절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톡톡히 해낸 공간이 사랑방이었다.

그 때 그 시절, 노인들의 겨울나기. 그러나, 이후에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핵가족화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남겨 놓고 말았다. 요즘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저소득 노인이나 독거노인은 물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공간이 되는 경로당 관리 등 어르신을 모시는 일로 늘고 있는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어르신들께 가장 위험한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동절기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움츠러 들고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길이 얼어붙으면 어르신들의 낙상 골절이 늘어나고, 실내의 온도차와 일교차가 클 때는 목감 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 발생률도 크게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인도 위 불법 질주 오토바이... 단속 대책 세워야.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고 놀랐다. 인도에서 이륜차를 타고 주행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96.5%),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빠서(54.9%), 차가 막혀서(22%)라고 답했다. 실제 길에서 보면 피자, 치킨, 중국음식 배달과 퀵서비스를 하는 오토바이들은 인도와 차도 구분없이 거칠고 빠르게 질주한다. 어린이와 노인들은 이런 난폭한 오토바이를 피하느라 위태롭고, 심지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혐악한 클랙스까지 울려댄다.

無等鼓. 계(契) 파동. 계는 일제 강점기 때 공동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모두 해산시켜 한 때 소멸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8·15 광복과 6·25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서민금융을 지배하면서 종종 계가 깨져 각종 사회문제를 불러들였다. 계 운영이 사사로운 금전거래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목돈을 굴리는 계는 경제가 어려우면 그만큼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도 커진다. 경제상황이 나쁘면 켜돈을 내기 힘들고, 흑역사도 계주가 돈을 벌고 있어 쉽게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는 주부와 서민들 사이에서 생행해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가계가 휘청거리기도 한다. 삼한시대(三韓時代)에도 존재했던 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져 왔다. 계는 서로 돕는 상부상조(互相相助)가 주된 목적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계는 취미 또는 생업, 통과의례를 공동부담하는 생활형에서 정치적 목적을 같이하는 결사(結社)형태로까지 발전했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